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세계초일류도시 인천
		배포일자	2023년 7월 21일(금) 총 2매	
담당 부서	도로과	담 당 자	• 도로운영팀장 김복수 ☎440-3781 • 담당자 박재형 ☎440-3783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

- 절토 사면,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사전점검 -
-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위험도 평가 용역도 시행 예정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집중호우·태풍 등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사전점검에 나섰다.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제로화하기 위해 도로시설물을 사전점검에 나선 것이다.

현재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, 인천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, 김준성 시 교통국장이 관내 도로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등을 살폈다.

지하차도와 도로 절토 사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.

지하차도의 사전통제는 수위가 0.3m에 도달하는 경우 진입을 통제한다. 그러나 인천시는 최근 호우특보 시 지역별 강우량과 침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통제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시달렸다.

아울러 인천시는 기상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은 만큼 전국 최초로 지하차도 등 개별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 새로운 등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.

현장 점검에 나선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“각종 재해·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을 물론, 재해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와 도로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<관련사진>



▲ 21일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이 21일 원적산터널을 현장점검해 시설관리자에게 절토사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.